

우리 종단을 말한다 | 대한불교불입종

총무원장 경암 스님

“법화삼매 통해 인류 성불 서원”

“온갖 중생도 이와 같아서 여러의 큰 가르침의 보장이 그 몸 안에 있건만, 그것에 대해 들은 바 없기에 알지 못해서 오욕에 빠져든 나머지 생사에 윤회하여 무한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나타나사 중생의 몸 속에 여러 장이 있음을 관찰하시고, 여러 보살을 위해 이 법을 설하셨느니라.” <여래장경>

대한불교불입종(종정 면철)은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出世本懷), 즉 ‘개시오입 불지지견(開示悟入佛之知見)’을 종지로 태허홍선 조사

특히 본 종단은 불교, 나아가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교화를 위해 정기적인 법회를 봉행하고, 청년회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경암 스님.

자오·자각·자증의 불교 신행이 목표

가 1965년 12월 8일 창종 했다. 본 종단은 <묘법연화경>의 법음인 ‘나무 삼달파 문다리카 수드라(南誨 薩達摩 芬多利伽 修陀羅)’를 주력염송 함으로써 법화삼매에 들고, 이를 정혜겸수(定慧兼修)로써 체득해 인류의 성불을 실현코자 한다.

또한 기복신앙으로서의 불교가 아닌 ‘복될 일을 하자’는 불교, 재래 인습적이고 타율적인 종교가 아닌 자율적인 종교로서 자오(自悟), 자각(自覺), 자증(自證)의 불교 신앙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총본산 송화사(충북 제천시 봉양읍)를 비롯한 전국 150여 사찰과 230여 스님들이 포교와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특히 송화사는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수행하면서 대중불교운동을 지향하는 법화신앙(法華信仰)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

1988년 12월부터 종립 법화유치원을 개원·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자비어린이회(초등학생)·오파아화생회(중학생)·비리아화생회(고등학생) 법회를 각각 정기적으로 봉행한다. 본 화불교청년회, 마야부인회, 법련회, 유마거사회, 화심회, 총신도회 등 계층 신도회도 활성화 되어 있다.

앞으로 불입종은 행자 수련원을 설치해 중도 교육을 체계화하는 한편, 총본산 송화사 성역화 사업 및 전통사찰 등록, 태허홍선 대조사 조사당 건립 등을 통해 종단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또 법화유치원 확장을 통해 어린이 포교에 힘쓰고, 유발포교사 양성제도를 활성화해 계층 포교에도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043)653-4848

정리=김진성 기자

“남이 잘 살아야 나도 잘 살 수 있다”

상월원각 대조사 탄신 97주년 법요식 성료...이 대통령 봉축 메시지

“상월원각 대조사님은 천태종단의 뿌리이며 샘으로, 대조사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종단은 ‘뿌리 없는 나무’, ‘샘 없는 물’과 같이 보잘 것 없는 존재가 됐을 것입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97주년 봉축법요식이 구암 25일 총본산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요식에는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정산 스님, 주석영·최원희 국회의원, 정우택 총북도지사, 권경상 문화관광부 총무실장 등 사부대중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월원각대조사의 유지를 기렸다.

정산 스님은 봉축사에서 “오늘날처럼 갈등과 분열, 대립이 횡행하는 시절에는 전 인류에게 대조사님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하다”며 “대조사님께서 강조하신 ‘나와 남이 서로 의지하며 존재하기에 남이 잘 살아야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깨우침 없



구암 25일 구인사에서 봉행된 상월원각 대조사 탄신 97주년 법요식.

이 이 위기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총무부장 무원 스님이 대독한 봉축 메시지를 통해 “대조사께서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참선 수행하는 ‘주경야선(晝耕夜

禪)’의 새로운 풍종을 세우셨다”며 “대조사님의 높으신 뜻과 가르침이 온 누리에 널리 퍼져 나기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 서민과 어려운 이웃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고통을 받는

다”며 “불교의 자비와 이타의 가르침으로 힘써 하는 국민들의 열거 불은 마음을 녹이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축사(사회부장 세영 스님 대독)에서 “상월 대조사님은 일제 압축기에 태어나 국민교화, 불교선양에 평생 바쳤고, 천태종을 한국불교 3대 종단으로 우뚝 세워 놓았다”며 “이는 상월대조사의 수행력이 여전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의회의장 도정 스님의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국운옹장기원 △현향·현화·현다 △봉축사 △축사 △삼통사 삼화합장단의 봉축사 △관음정진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권경상 총무실장 대독), 정우택 총북도지사, 송광호 제

천·단양지역 국회의원 이 축사를 했고, 국회 민주당 연동회 회장 최문순 의원은 축전을 보내왔다.

상월원각 대조사는 15살에 법은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45년 소백산 기슭에 구인사를 창건하고, 1966년 맥이 끊겼던 천태종의 중흥을 이끌었다. 또 1967년 천태종을 문화공보부에 정식 등록한 뒤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종단 3대 지표로 삼아 교세를 확장해 천태종의 중흥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천태종은 구암 31일 구인사에서 대종 대조사 탄신 83주년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대종 대조사는 1945년 상월원각 대조사를 은사로 출가, 1974년 상월원각 대조사 열반 후 천태종 2대 종정에 취임해 1993년 열반 때까지 20여 년간 천태종단 안건과 발전에 기여 했다.

김진성 기자 yeam@buddhapia.com

마음으로 닦는 목욕 봉사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목욕 봉사 동참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오른쪽)과 사회부장 경천 스님(가운데)이 단양방문목욕센터에서 봉사를 하고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과 사회부장 경천 스님(천태종복지재단 상임이사)이 구암 26일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단양방문목욕센터를 방문해 노인 목욕 봉사에 동참했다.

이날 천태종 스님들은 노인요양보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이동목욕차량 내 설치된 장비를 이용, 원 모(64·단양군 가곡면) 할아버지에게 목욕 봉사한 후 헤어머리를 이용해 대까지 모셔다 드렸다. 원 할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로 거동이 불편해 매주 방문목욕을 받고 있다.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해두)은 2007년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동목욕차량을 지원받아 2008년 3월부터 중증 장애인 및 노인성 치매 질환 등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중증 노인들을 대상으로 방문목욕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천태종 수련법회 잇따라 개최

교원불자·청년회 동계수련법회

천태종 청년회 및 교원불자 동계수련법회가 잇따라 열렸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1월 2-4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제32회 전국청년회 동계수련법회 ‘몸도 마음도 부처님처럼’을 봉행했다. 법회에는 천태종 중앙청년회, 전국청년회, 후원회, 학생지도교사연합회 소속 불자들이 참가해 2박 3일 동안 △관음정진 △적멸궁 참배 △불교적 경제관 강연 등을 체험했다. 이어 천태종은 1월 9-11일 총본

산 단양 구인사에서 제24회 전국 교원불자 동계수련법회 ‘내인의 부처님을 찾는 산사체험’을 개최한다.

전국 교육관련 불자(교육 전문직 및 행정직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법회는 9일 입제식 및 관음정진, 10일 △대조사전 참배 △큰스님 친견 △경전이 들려주는 아(我) 최봉수 교수 강연 △불교요가 △108참회 △참선, 11일 서원 적기 및 회양식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김진성 기자

진각종 1월 5~11일

새해 대서원 불공

진각종(총리원장 최정)은 1월 5일~11일 국내·외 각 심인당에서 ‘새해대서원불공’을 봉행한다.

‘나라의 안녕과 경제발전’을 서원덕목으로 정해 봉행되는 이번 불공은 9일 입제식 및 월초불공을 겸해 봉행된다.

이와 관련해 진각종의 한 관계자는 “이번 불공은 인류의 심성을 정화하고, 세계경제 정상화와 정치문화 향상, 경제회복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단의 교법질서 호지로서 교화활성화와 진각행자의 종지확립 및 신심증진 등을 서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각종 새해대서원불공은 새해를 맞아 진언행자들이 한 마음으로 종인 도흔 정사가 밝힌 서원덕목을 받들어 실천·수행하고, 중생의 이익과 안락 및 현세정화를 이취 만다라 세상이 구현되길 발원하는 진각종의 대표 불공 중 하나다.

김진성 기자

구독신청·기사제보
02-2004-8200

금강대 어린이 영어캠프 개최

천태종 금강대학교(총장 성낙승)가 1월 12-21일 ‘제6회 금강대학교 어린이 영어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초등학교 3-6학년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강사의 교육과 △영어 퀴즈·게임 △영어 애니메이션 관람 △스포츠 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금강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캠프는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반 정원을 15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반마다

외국인 강사 1명과 보조강사 2명을 배치했다”며 “주입식 영어 교육에서 벗어나 즐기며 체험하는 학습을 통해 영어에 대한 친근감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집기간은 10일까지이며, 참가비는 55만원이다. 기존 참가자와 함께·자매가 함께 등록하면 각각 5만원, 천태종 사찰 주지 스님 추천자는 10만원 할인 받을 수 있다. (041)731-3583

김진성 기자

화제의 신간

귀신 뽑는 래정비법!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매는지, 무엇이 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에 붙어 있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조사법 공개!

귀신 뽑는 래정비법으로 복귀하게 하고 진언이 들 수 있는 비법 공개! 6년간의 실신병으로 한눈에 속삭 알 수 있게 조사를 확실하게 설명! 신권/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 유력특수신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신개념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매일매일 운세 보는법 공개...

365일 매일 한 장씩 한 눈에 훤히 볼 수 있게 뽑아놓은 래정비법!

4x6배판/칼라제본/436쪽/정가 20,000원

百超律歷學堂 Tel: (02) 3667-4446 입금계좌(예금주: 조영신) 농협 023-02-478822 H.P: 010-3813-4443 신한 010-3813-4443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 영을 직접 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임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을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 퇴마, 최면을 배우실분
- 자기최면, 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대중, 종교분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도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 빙의(귀신병) 퇴마, 최면? 100% 전수 - 치유
-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 비염, 발기부전 특효

서울지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1번지 연세빌딩 후문앞 지점사 ☎ 02)796-7579 H·P 010-3056-3315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4-5586 H·P 010-3056-3315

•서울교육 : 목, 금, 토, 일 (숙식가능) •부산교육 : 연중무휴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HTTP://WWW.JIJIANGSA24.ORG